

# 순창 관광객 500만시대 눈앞

##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사업 120억원 확보

순창군이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 국가예산 120억원을 확보해 장군목 일대가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급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내년 실시될 예정인 5억원이 반영된 상태로 군비 25억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45억원이다. 이번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국가예산 확보가 관광산업에 갖는 의미는 크다. 군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섬진강 장군목과 용굴산 일대를 본격 개발해 강천산과 함께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키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용굴산 치유의 숲, 자생식물원 사업을 완료해 야생화가 만개하며 관광객이 늘고 있다. 용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섬진

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비좁은 진입로 문제로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장군목 진입로는 국도 21호선중 동계 구미리에서 장군목까지는 승용차 한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또 폭우시 도로가 침수되어 탐방객의 고립 및 사고 위험도 있었다. 군은 섬진강 장군목 일원의 생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가예산확보에노력을 기울여 내년 국비 반영이 최종 확정됐다. 사업 구간은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에서 어치리 구간으로 약 6.5km 구간이다. 군은 진입도로 폭을 8.5m정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50억 원을 투자하는 용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완공시기와 맞물려 순창의 관광객 500만 시대를 겸인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 진입도로 개설 국비 확보는 장군목 일대를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면서 "최대한 장군목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장군목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제로화 총력

## 남원시 유관기관·단체 협력 대응태세 유지 시민안전 확보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9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사전대비기간을 운영해 대설 및 한파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간담회 개최 및 자체교육을 통해 유관기관, 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10월 3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단 등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해 대설 및 한파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이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경우 파견근무 등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1일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추진해 강설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시내도로



22개소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읍면동 주요 도로변에 모래주머니 2만배 배치, 주요도로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염화칼슘 400톤, 소금 1,900톤, 친환경제설제 80톤)를 확보하였으며 강설시 도로보수원, 운전원 등 총 96명의 제설인력을 투입 총 55개 노선 420.7km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보도 등 취약지역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설제 2,000포(25kg/포)를 배부할 예정이며, 읍면동에 배부된 245대의 트랙터부착용 제설삽날을 이용 각 마을별 제설봉사대원들이 자체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폭설, 한파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친환경농업 실용화 교육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최근 개소식을 갖고 친환경농업 실용화 교육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강당에서 친환경농업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BM활성수 실용화 및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본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이현복 경기도 양평 당너머 농장 대표가 맡았다. 이현복 대표는 19년간 BM 활성수를 한우사육과 농업에 활용 유기농축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키운 대표적 친환경농업 성공 리더다. 이 대표는 교육을 통해 그동안 본인이 일선 농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문제점에 대해 현실성 있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앞으로 BM 활성수 연구생산플랜트를 가동하여 매일 2톤씩 생산해 교육받은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쌀 살충제 잔류농약 과다 검출에 따른 농약 오염을 방지하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홍보를 위한 기본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창군이 앞장서 GAP 인증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운영 우리 순창군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정착을 위해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GAP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마을만들기 '브레이크 없는 가속페달'

## 삼락농정 사업평가서 인정 내년 연계사업 선정 잇따라 사업비 확보 '풍작' 이뤄

임실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8년도 공모사업에서 '풍작'을 이루면서 활력있는 농촌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7년 삼락농정 대표사업 평가에서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2018년도 마을 관련 공모사업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군은 전북도의 삼락농정 핵심사업 10개 사업 중,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이 높은 추진성과와 중간지원조직의

우수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내년도 마을만들기 연계사업들이 잇따라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적사업'에 두월마을은 4년 연속, 둔대기마을은 2년 연속 선정, 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생생마을 사업 중에는 사후관리단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확보한 데 이어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비로 2억원을 뺐다. 특히 내년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전반에서 국·도비 총 31억원의 확보를 하는 등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군은 12개 읍·면 중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 7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 및 마을운영

현황 진단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별 활성화 정도를 분석, 맞춤형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후속사업으로 2018년 마을지원사업을 연계해 임실군 차원의 마을만들기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심 민 군수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임실군만의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활력 있는 농촌, 살고싶은 임실을 만들어 가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농사만 전념하세요"

## 남원시 농심 챙기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율을 2018년부터 85%로 대폭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공고히 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17년도에도 시비 지원율을 상향하여 농업인의 2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변화하는 기후 여건과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비지원율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2018년 시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18년부터 농업인이 실제로 1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85% 상향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율을 높여 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을 도모할 수 있

도록 본격적인 행보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벼 품목의 경우 1ha(3천평)당 평균 보험료 14만5000원 중 2만1,075원에 가입이 가능함으로써, 확대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가 평균 2만2,000원, 사과 재배농가 24만2,450원의 보험료가 절감되어 농가가 체감하는 만족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영농 여건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314ha의 가입면적이 2017년 10월기준 5,921ha의 가입으로 18배(1,881%) 성장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가입면적 확대 정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이다"라고 당부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사업 홍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스쿨존 교통지원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15일 남원시 시니어클럽에서 스쿨존 교통지원 어르신 6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통사고 현황을 소개하고 도내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걸다)과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및 이륜차(자발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 방법과 교통수신호 및 깃발신호 방법을 교육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교통근무시,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과 소통을 염두에 둔 교통지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